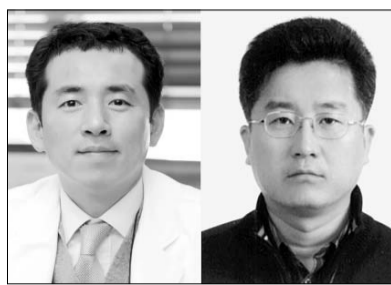


‘독성 제거 살모넬라균’ 이용 암 면역치료제 개발

전남대 의과대학 민정준·홍영진 교수 개발

전남대학교 민정준·홍영진 교수가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을 이용한 암 면역치료제를 개발했다. 전남대는 의과대학 의학학교실 민정준 교수와 미생물학교실 홍영진 교수가 개발한 ‘살모넬라균’을 활용한 암 면역치료제 연구’ 논문이 생체재료 과학 저널인 ‘바이오머티리얼즈(Biomaterials, IF:15.304)’에 게재됐다고 27일 밝혔다.

민 교수와 홍 교수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티피리움에 암 조직에서 항암면역 유도물질을 분비하도록 독성 관련 유전자를 제거한 뒤 유전공학적으로 재설계했다. 정맥을 통해 주입된 면역치료용 박테리아는 암 조직을 집중 겨냥해 강력한 항암면역물질을 분비하고 암 조직 내에서 대식세포, T림프구, 자연살상세포 등 면역세포들을 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민정준 교수(왼쪽)와 홍영진 교수

성화하면서 강력한 항암 면역반응을 일으킨 것을 확인했다. 또 박테리아에 의해 치료된 생쥐

에 같은 암세포를 이식할 경우 강력한 거부반응이 관찰돼 암 치료제와 암 백신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민 교수는 암 치료용 박테리아를 인체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며 “암 치료용 박테리아는 합성생물학적 기법으로 치료제의 기능을 갖도록 재설계되고, 대량생산공정과 무균프로세스검증 시스템을 통해 주사용 치료제로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포토뉴스



순직·공상 퇴직한 광주경찰 자녀에 장학금 전달. 광주경찰청은 무등장학재단이 제작 중 순직·사망 또는 공상으로 퇴직한 경찰관들의 자녀 20명에게 장학금 322만 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경찰청 제공



청암대, 성격유형 검사 통한 자기이해 프로그램. 청암대 학생상담센터는 ‘2023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프로그램 MBTI 성격유형검사와 에니어그램 성격검사를 활용하여 진행했으며, 학과별 신청에 따라 간호학과, 치위생과, 호텔외식조리과, 향장파미용과, 사회복지과 5개 학과 351명의 학생이 검사에 참여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주암댐노인복지관, 신나는 예술여행

한국문화예술위 지원... ‘소리로 풍류를 즐기다’ 공연



순천시 승주읍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K-water 나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주암댐노인복지관은 2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국악&홀릭컴퍼니 주관으로 ‘소리로 풍류를 즐기다’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역중심 기반을 통한 전통예술의 가치를 사회적 공유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전통의 소리를 함께 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악&홀릭컴퍼니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신명나는 판소리와 트로트, 국악 공연이 전개됐다. 공연을 관람한 한 어르신은 “마을 이웃들과 다양한 국악을 듣고 함께 노래 할 수 있어 너무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암댐노인복지관 문운연 관장은 “농촌 특성상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나는 예술여행을 통해 어르신들께 다양한 공연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인사	광주 서구	◇4급 진보
	◇4급 승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서구의회 사무국장 정창욱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4급 전임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광주시교육청, 피렌체 국립 음악 학교와 교육협약 체결

‘예술분야 진로역량 강화 위한 교육협약’ 맞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9일 이탈리아 피렌체 국립 음악 학교와 ‘예술분야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협약은 예술분야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고자 이뤄졌다.

특히 양 기관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마스터클래스 실시 등 단기연수 ▲예술음악사업 공유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문화예술분야 학생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해 오는 7월 16~23일, 6박 8일 동안 이탈리아에서 ‘2023 학생 해외 문화예술 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협약의 일환으로 피렌체 국립 음악 학교를 방문하고 해당 학교 교수와의 마스터클래스 운영과 졸업생과의 진로멘토링을 함께 추진한다. 또 참여 학생들은 피렌체 국립 음악 학교 음악홀에서 국립 음악 학교 교수 및 학생들 대상으로 작은음악회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광주은행 4년 연속 후원금

전남개발공사·광주은행, 경주장 활성화 네 번째 협약



광주은행이 올해도 지역 모터스포츠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영암에 소재한 국제자동차경주장은 한해 평균 10만여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메카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 광주은행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네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올해를 포함해 매년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주장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국제자동차경주장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광주은행과 함께 힘을 모아 국내 모터스포츠 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권형안 기자

광주 자치구 최초 ‘종사자 회계 교육’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투명 운영 목표, 전문강사 초청강연



동구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명확하고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회계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주 5개 자치구 최초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와 ‘지방계약법·기능보강 실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강사로 광주시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 운영매뉴얼’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김경아 벨엘요양원장을, ‘지방계약법·기능보강 실무교육’ 강사로 서울복지재단 계약 매뉴얼 제작 공동 연구원인 현 대전시청 회계과 오대석 주무관을 초빙해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김도기 기자

북구, 청년이 청년에게 ‘청년학교’ 운영

30일까지 수강생 모집...영상편집·3D모델링·웹디자인 등

북구는 내달부터 북구청년센터에서 강사와 수강생이 모두 청년으로 구성된 신규 교육 강좌인 ‘청년학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년학교는 지역 청년들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경험이 부족한 청년 강사에게는 강의 경력을 쌓는 기회를, 기술교육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무료 배움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에 북구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영상편집, 3D모델링, 웹디자인, 블로그 운영, SNS 활용 등 청년 강사가 직접 기획한 8개 강좌 중 수강인원 등 개설 조건을 충족하는 7개 강좌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강좌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총 5차시로 운영되고 이론과 실습을 통한 맞춤형 강의가 진행된다. 수강 대상은 북구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하는 청년으로 1인당 최대 3개 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30일까지 북구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강의 계획서를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일자리정책과(062-410-6568)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청년학교가 열정과 재능은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 강사와 배움을 원하는 청년들간 서로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성장과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안정, 재충전, 취·창업, 참여·금융, 결혼·출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형안 기자

봉강면 귀농·귀촌인 멘토링 결연식 개최

멘토·멘티 간 소통과 전통음식 만들기(매실장아찌) 체험



광양시 봉강면은 지난 26일 비봉복지센터에서 ‘2023년도 봉강면 귀농·귀촌인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연식은 무미자 봉강면장을 비롯한 멘토·멘티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멘티 인사, 소개, 프로그램 안내,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매실장아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귀농·귀촌인 멘토링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봉강면 자체 시책을 연계해 봉강면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의 행복한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비누공예 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된장, 생강편),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결연식 참석자들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해 준 멘토링 사업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의 기자